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의 안 번 호	25542
------------	-------

제안연월일 : 2023. 11. 21.

발 의 자 : 이상민 · 김영배 · 김성환
권영세 · 홍정민 · 황운하
장혜영 · 이용선 · 김종민
윤영찬 의원(10인)

주 문

대한민국국회는 한국과 독일이 1883년 11월 26일 통상우호항해조약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미래를 향한 소중한 동반자로서 공고한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왔으며 양국의 발전을 위해 상호연대를 공고히 해 왔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한국과 독일은 지속적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서독은 전후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재정, 경제 및 기술원조를 제공하였고, 한국은 서독의 경제재건에 필요한 노동력 지원요청에 따라 한국 간호사 및 광부를 파견하여 1963년 247명의 한인 광부가 서독에 도착한 이래 1977년까지 총 7,936명의 광부, 10,564명의 간호사(1965-76년) 파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독투자는 누적액 기준 63.8억불이며 독일의 대한투자는 141.7억불에 달하고 있다. 현재 양국 간 286억불에 달하는 교역량과 유럽연합(EU)내 한국

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써 교역 경제 다변화 차원에서도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분단국가에서 평화통일을 달성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회 불평등, 청년실업, 지역불균형, 여성차별 등 현재 세계 각국이 봉착하고 있는 구조개혁적 과제를 먼저 다루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DNA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해야 할 공통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테러로 촉발된 전쟁과 북한의 지속되는 핵위협은 이러한 양국 간 파트너십의 의미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지난 10월 독일연방의회는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 결의안을 과반수로 채택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 역시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와 안보 상황 변화에 맞추어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익 증진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민족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한 경험을 토대로 독일이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독일이 민족분단의 아픈 역사를 공유한 연대감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물론 동아시아 나아가서 세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인류 공동번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테러로 촉발된 전쟁과 북한의 지속되는 핵위협은 이러한 양국 간 파트너십의 의미가 더욱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현재 양국 간 280억불에 달하는 교역량과 유럽연합(EU)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점에 만족을 표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무역과 투자의 증진, 기술협력의 강화 등 경제통상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데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및 국제 표준화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3. 대한민국국회는 한·독관계의 역사적 긴밀성과 양국이 갖고 있는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국제적 역량과 비중으로 비추어 양국 관계의 발전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제반 핵심 미래 산업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문화 콘텐츠, 경제, 산업·과학기술 분야 공조를 더욱 공고하며, 독한근로자채용협정의 일환으로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로 파견된 한국인 광부 8,000여명과 간호인력 10,000여명은 독일(서독)에 크게 기여한 경험이 있는 만큼 향후 사회초년생 및 청년을 위한 단기 인턴십 또는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양국의 언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촉구한다.

4. 독일은 분단국가에서 평화통일을 달성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회 불평등, 청년실업, 지역불균형, 여성차별 등 현재 세계 각국이 봉착하고 있는 구조개혁적 과제를 먼저 다루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DNA(Data, Network,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해야 할 공통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기후 보호를 국가적 목표로 선언하고 파리 협정을 일관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양국은 노력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과 독일 양국 의회가 한국-독일 관계 발전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소통을 확대하고 공동 현안에 대한 상호 이타적인 해결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설립된 한독포럼을 통해 양국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당면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다.

제안이유

2023년은 한-독 수교 140주년이자 광산근로자 파독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양국은 외교 관계 수립 이후 각별한 신뢰와 우정을 쌓아왔으며 오늘날 상호 소중한 협력파트너로서 공고한 유대관계를 유

지하고 있음.

분단의 상처를 딛고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어 온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에 더욱 각별한 연대감을 지니고 있음. 또한 지난 2023년 10월 19일 독일연방의회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으로 한번 더 확인하였음.

대한민국국회는 양국 간 상호교류 확대 등을 통해 독일연방 하원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지원을 포함, 향후 양국관계 발전의 구심점을 역할을 다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임.